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유의 주 앞에(찬26/새22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정우영 장로 2부/임낙현 장로 3부/최재호 집사 4부/김태원 장로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가 나를 사랑하시어(이현철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골로새서(Col.) 3:22-4:1 .....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1:1-8
- 말씀 Message .....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20) **일터, 진정한 영성의 자리**

4부 .....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36): **당첨된 자는 복이 있나니**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저 장미꽃 위에 이슬(찬499/새442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딸의 장래

### Daughter's Futur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대학을 졸업한 딸이 집에 다시 돌아와 있어서 기회만 되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자주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가 대학 졸업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24살, 25살에 결혼한 우리 부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나이가 들 만큼 든 딸인데, 우리 부부의 눈에는 그냥 철모르는 어린 초등학생같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직장을 찾는 중 인터뷰 간다고 하면서 가끔씩 기도 부탁을 할 때면,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딸 때문에 가슴 언저리가 괜스레 쓰립니다. 대학가면서 이미 보내는 훈련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 직장을 찾겠다고 일주일 두세 군데씩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니, 우리 부부가 모르는 사이에 훌쩍 커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자녀들을 생각하면, 왜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에 바쁜 자녀들을 보면, 장모님이 왜 셋째를 낳을 때 마음이 언짢아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넷째 막내를 낳았을 때는 다행(?)인지 장모님은 이미 천국에 가서서 꾸지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육아라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차라리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로부터 잠시 브레이크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때론 육아를 위해 돈을 벌러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지만, 그만큼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긴 여름 방학에 부모님들의 관심은 집에서 노는 아이들을 어디에 맡기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특별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 아예 한국 친척에게 보내어 한국에 있는 언어 연수 학교에 보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름성경학교나, 썸머캠프 등에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단순히 자녀들을 맡기고 부모님들만의 심의 시간을 갖는 유익 뿐 아니라, 알찬 계획 속에 의도 있는 신앙 교육을 시키는 교회 프로그램이 사실 더 매력적입니다. 아이들은 결코 중립이 아니기에,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배운대로 그들은 평생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집에 돌아와 배운 노래를 웅알거리거나 숙제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기특하기까지 합니다. 계속 되는 가정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가정을 겸손히 세워 가기를 기대합니다. 대학을 졸업 한 막내 딸을 보면서 아직 육아(?)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베델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장래의 베델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My daughter, who just graduated from college, has returned home. Every opportunity I get, I try to converse with her. Of course, we talk often about what she would like to do in the future. When I met my wife, she was a college senior. We started dating and got married when we were 24 and 25 years old. From that perspective, my daughter is grown old enough. But we still see her as a young immature elementary school kid. She's looking for a job and going to interviews. Time to time, she asks for our prayers. My heart aches as I see my daughter preparing herself to become independent. I thought we were adequately trained to let her go when we sent her off to college. Seeing her going out to interviews 2-3 places a week, we quickly realize just how much she has grown-up.

Whenever I think about my children lately, I don't know why I keep feeling sorry. I understand why my mother-in-law wasn't all that thrilled about us having a third child when we were already so busy raising kids. Fortunately(?), when we had our fourth child, my mother-in-law did not scorn us since she was already in heaven. Raising children is hard work. I can understand why some people think it's better to work, taking little break from kids. Sometimes we may feel that we are working to raise our kids. Raising children is no easy task. Parents are worried about where to take their kids for care during a long summer break. Some parents send their children to special summer schools, to Korea to visit relatives, and even to language schools in Korea.

Naturally, parents are interested in church provided Vacation Bible School and summer camp. These programs benefit parents by having a place to send their children and take a break. Moreover, having a church program that is well organized to teach Christian faith is very attractive. Because children never stay neutral, they will follow teaching. Also, this becomes an important time since they will live their lives with the values only that they were taught. It's amazing to see children humming songs that they learned and doing homework at home. We hope to humbly build our families that God intended, listening to the voice of God in our families. Watching my college graduate daughter, still with burden of raising(?) her, I bless all future Bethel workers as they are being raised in our Bethel families.

주일 설교 시리즈: 골로새서 강해 (20)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



# 일터, 진정한 영성의 자리

(골 3:22-4:1)

1.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만족도를 1(불만족)에서 10(최고만족)에서 정한다면 점수를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은퇴하셨다면 그 전 직장에서의 만족도는 몇 점입니까?

2. 골로새교인들에게 "종들아..." 주신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일까요?(22절, 참고/ 몬 1:10-17)

3.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23절)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원론적 사고 방식은 무엇입니까?

4. 순종의 타당성을 정리해 봅시다. (22-25절)

1) \_\_\_\_\_

2) \_\_\_\_\_

3) \_\_\_\_\_

5.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기독교의 직업관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상전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근거도 하나님께 \_\_\_\_\_입니다.  
(참고/ 벧전 2:17, 행 12:22-23)

■ 적용찬양: 저 장미꽃 위에 이슬(찬499/새442장)

적용하기



예살 선교  
몽골

# 삶이 곧 선교가 되기를



첫 선교를 앞두고,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섬기러 간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설레지 않으려고 애쓰던 제게 한 형제가 '섬기고 교제하는 일에 설레는 건 당연한 거야'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하자마자 조이센터로 향해 마을 아이들과 페이스 페인팅, 복음 팔찌 만들기 등을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은 을지바트 목사님을 통한 '통역의 힘'이었습니다. 예살에서 참사랑교회에 QT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매일 아침 7시에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나눔과 말씀 속에 담긴 열정과 호흡까지 고스란히 전하시는 모습을 통해 '영적인 흐름'을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을지바트 목사님께서 지방교회 사역에서 설교 통역을 하실 때, 솔로몬 목사님의 마음을 존중하며 그대로 옮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복음은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이번 선교가 자연스럽게 기준처럼 느껴졌고, 이전에 몽골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교도 하고 잠시 아쉬운 마음

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보다 '얼마나 사랑을 전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이래야 해'가 아니라, '이번 선교는 이랬구나.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는 이것을 배웠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몽골 선교를 함께해 준 팀원들과, 모든 것을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QT를 통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금 깨달았고, 'ἄγιος - 거룩'이라는 주제처럼 삶이 곧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하늘

사역  
안경

# 눈을 밝히며 복음의 빛이 곳곳에 비추기를



안경사역의 목적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마 6:22)라는 말씀을 따라, 선교지 현지인들의 시력 검사와 맞춤형 안경 제작을 통해 베델 선교를 돕는 것입니다. 시력 회복을 도와 현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접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사역팀은 먼저 각 선교팀이 안경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동영상 강좌와 대면 교육

을 통해 시력 검사 이론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 5회 이상 정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선교팀에 필요한 시력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돋보기 안경 배포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선교팀에서 시력 검사를 실시한 후 작성된 검사지를 바탕으로 교회에서 안경을 제작하여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리고, 선교사님들은 이를 직접 전달하면서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을 넓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사역에는 손재주 있는 약 10명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섬기고 있으며, 이장로님과 다섯 분의 은퇴 장로님들께서도 주중에 모여 안경을 정성껏 제작하고 계십니다.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역을 하며 시력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안경을 써본 적도 없는 현지인에게 교정 안경을 씌워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감

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은퇴 장로님들과 동역하면서 그분들의 열정과 신앙의 유산을 경험하는 것은 큰 감동이자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팀이 안경사역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선교지에서 안경사역의 폭이 넓어져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 성도님들 중 선교에 참여하고 싶지만 마땅한 사역을 찾지 못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안경사역에 함께해서 선교의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성함, 이메일, 교적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949)966-1135, yoonkim@sandiego.edu  
김윤근 집사

예배  
신학강좌

#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제자도의 시선에서 바라본 고난에 대한 신학강좌는 우리에게 순종하심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강의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세상적 잘됨이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아들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음에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댓가로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받는 고난, 애매하게 받는 고난에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위로 받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됨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길이 되셨고 우리도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게 하기 위해 베델의 신학강좌는 우리를 결집로 가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춘희 집사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며 현재의 어려움이 나중에 감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저에게 한여름의 신학강좌는 신선한 반전이었습니다. 고난

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

는가?를 물어야한다는 것은 생각의 차원이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내게 온 고난을 어떻게든 잘 이겨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어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세

상의 가치관속에서 살고 있으며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구나..하는 생각에 이어서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살아남기 위한 비겁한 선택이 나의 선택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실수와 초라함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길 다짐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고립되고 외로운 가운데 그 끝이 비록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사건이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수정 집사



이번 신학강좌를 통해 고난을 대하면서 제 마음의 자세가 유약하고 세상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신앙적인 고난의 해석을 고민하지만 마음으

로는 피하고만 싶고 두려움, 원망, 불평 그리고 징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학강좌를 통해서 고난에 관한 묵상을 하며 조금씩 제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립니다. 인생 길을 지나가는 동안 고난의 터널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점차 줄어들고 고난의 터널을 만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길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고난의 사건을 듣게 되면 멀리하기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님의 지혜와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저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저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누구에게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과 의 비밀과 축복의 여정으로 저희 삶을 이끄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고난이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기도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고난의 때를 준비하며, 고난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고난 앞에서 저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양승화 집사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2:18) 고난이라는 불청객이 내 삶에 찾아 올 때면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에 놓여있는 고난의 버거움들은 나를 영적인 낙심과 포기 상태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신학 강좌는 내가 생각했던 고난의 관점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던 상황들을 소위 고난이라 여겨왔습니다. 그 고난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나의 이익만을 구했고, 때론 원하는 것을 얻지못해 억지를 부리는 슬픈 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십자가의 고난과 거절감의 아픔으로 흘리셨던 그 눈물은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주신 교훈처럼 이미 시험과 고난 당하셨던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내삶의 통제권을 주께 내어 드리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아름다운 눈물로 내 인생의 여정 위를 덮고 하늘의 소망과 함께 다시 그길을 떠나봅니다.

홍소연 권사

사역  
목장 담당

# 함께 성장하는 복된 공동체

9월에 있을 하반기 셀모임의 개강을 맞아 각 목장의 담당 목사님들과 도우미 권사님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셀에 대한 문의나 기도 제목, 심방 요청, 경조사 등은 언제든지 담당 목회진에게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올 하반기에도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며 성장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셀목자님들께서는 매월 진행되는 셀목자 정기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어, 목장 안에서 더욱 긴밀한 소통과 동역의 사역을 힘 있게 감당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 안에서의 하나 됨으로 모든 목장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는 하반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Jesus Alone!

조동현 목사

**믿음 목장**



조동현 목사      박은혜 권사

**은혜 목장**



서동민 목사      윤성자 권사

**JOY 목장**



박성권 목사      김일란 권사

**소망 목장**



이충경 목사      김성희 권사

**충성 목장**



정승락 목사      김귀순 권사

**기쁨 목장**



박결 목사      김민숙 권사

**사랑 목장**



조태현 목사      박승원 권사

**화평 목장**



박성권 목사      김명선 권사

**은유 목장**



배홍수 목사      김오옥 권사

예배  
OICOS 1000

##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OICOS 1000,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벽.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찬양팀과 베델 워십팀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이른 새벽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아이들, 뜨거운 눈물로 주님을 높이는 어르신들의 모습까지. 세대와 문화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송 시간에는 영어권 세대가 중심이 된 JOY 목장과 1세대로 구성된 화평 목장이 함께 'How Great Is Our God(위대하신 주)'를 올려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 있는 세대들이 한 마음으로 드린 이 찬양은, OICOS 예배의

의미를 깊이 전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수원 원천침례교회의 김요셉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3-26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Faith @ Home"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나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지내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을 지켜오신 간증을 유쾌하고 진솔하게 나누어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았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다(no ordinary child)'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 부족한 나 자신을, 우리 자녀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

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교 후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손을 맞잡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세대가 하나 되는 시간, 각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온 세대 새벽예배를 통해, 각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혜림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송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이형석 전도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가을학기 셀사역

온 가족 행복한 셀 방학을 잘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가을학기도 큰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각 목장의 셀모임은 9월 7일(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가을 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1. 셀 부흥회

다가오는 가을, '몸 튼튼! 마음 튼튼! 믿음도 튼튼!'이라는 주제로 셀목자, 셀식구들, 그리고 전 교인을 위한 셀부흥회가 열립니다. 베델의 '튼튼

3인방'인 김한요 담임목사, 황성철 목사, 김익신 박사(장로)의 강의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꿀팁과 말씀이 어우러진 믿음의 충전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8월 22일(금) 저녁 7시 30분, 8월 23일(토) 오전 6시, 오전 7시 30분

### 2. 신임 셀목자 훈련

신임 셀목자님들의 첫걸음을 위한 소중한 시간인 신임 셀목자 훈련을 위해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장소: 8월 17일, 24일, 31일(주일 오후 1시 30분) 3주간, 살롬채플

### 3. 셀목자 정기모임 개강

가을학기의 셀목자 정기모임을 시작하며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의 특별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일시: 9월 6일(토) 오전 7시 30분

▶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조동현 목사 (949)854-4010

###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월)	8/10:	①부-이선갑	②부-정현근	③부-최호경	④부-김승진
	8/17:	①부-조관희	②부-주진철	③부-한 존	④부-김소라
	8/24:	①부-최주상	②부-탁정호	③부-한상섭	④부-권주현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8월)	8/9:	박성규	8/16:	기상원	8/23:	김건중	8/30:	김기주
	강단꽃(8월)	8/3:	김학남	8/10:	오경희, 조나원, 현승원	8/17:	윤주원, 최하자	8/24: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태원(내과), 간호사-채수정      다음주 | 의사-박종구(치과), 간호사-김명숙

###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수요저녁예배** 8월 한달간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일시/설교: 8월 6일 저녁 7시 30분, 이충경 목사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자녀 위한 기도편지 신청 안내** 베델기도사역팀에서 새 학기 시작부터 연말까지 매주 주말마다 자녀에게 발송할 수 있는 기도편지를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사랑과 기도가 담긴 편지를 통해 멀리 떠나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고 계속해서 자녀와의 신앙의 끈을 이어가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발송 기간: 8월 29일(금)-12월 19일(금), 총 17회  
신청 방법: 8월 한달, 수요저녁예배 후 신청 부스에서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prayer@bkc.org

◆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온유 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8월 5일(화)-8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온유 목장(담당 배홍수 목사)  
\*OICOS 1000 특별 집회로 인해 8월 OICOS는 없습니다.  
대신 9월 5일(금) 저녁 7시 30분에 "OICOF(오이코프)"가 열릴 예정입니다.

◆ **베델 양육반 모집(한/Eng)**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거나, 흔들림 없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싶으신가요? 베델 양육반에서 답을 찾으세요. 훈련된 인도자와 함께 견고한 신앙의 기반을 다지고, 귀한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영어 양육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 8월 3일(주일)-17일(주일)  
신청 방법: 본당 앞 부스, QR 코드 신청  
오리엔테이션: 8월 24일(주일) 오후 1시, 비전채플(한/Eng)  
문의: (양육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Eng) Rev. David Park (718)490-9931

◆ **제63차 전도폭발 모집** 전도의 필수적인 방법과 패턴을 배우고 훈련받는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기간/장소: 8월 26일-12월 9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유년부실  
등록 방법: 본당 앞 부스와 후보 QR 코드 신청  
문의: 최동주 집사 (602) 466-4477

◆ **베델 BAM 모집** 복하기 훈련 1-2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방법: 8월 10일(주일)-24일(주일), 본당앞 부스나 QR 코드  
훈련 일정: 8월 28일-11월 20일(총 12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문의: 이완희 집사 (949)431-4398

◆ **제12차 힐링킹덤 미국 봉사자 모집** 힐링킹덤은 험난한 과정을 견디고 낮은 땅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탈북여성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13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여의도침례교회 드림센터(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길 264)  
신청 마감일/방법: 8월 31일까지, QR 코드 신청

◆ **베델 아기학교 가을학기** 생후 15-48개월 아기들을 위한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9월 3일-11월 19일 매주 수요일, 총 12주  
정규반(15-48개월) 회비/정원: \$300, 36명  
추가반(30-48개월) 회비/정원: \$200, 6명  
문의: 최미정 전도사 (949)738-7225

◆ **제6기 베델기도학교 등록**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육 기간: 8월 14일-11월 13일 (총 14주)  
접수 마감: 8월 10일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prayer@bkc.org

◆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 교사 모집** 베델한국학교에서 9월 6일 개강을 앞두고 한국어 교육에 헌신할 교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가을 학기 기간: 9월 6일-12월 13일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2, <https://koreanschool.bkc.org/contact/>

◆ **베델 그레이스 콰이어 모집** 시니어 성가단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토요 헬스바 기도회를 중심으로 섬기며 찬양과 친목을 이루어갈 콰이어에 지원바랍니다.

자격: 베델교회 세례교인 60세 이상  
문의: 이국선 장로 (949)677-3840, 오성애 권사 (909)319-2158

◆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1 단기선교가 8월 5일(화)-12일(화)까지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유승칠 성도님(유형석 집사의 부친, 강 영 집사의 시부)께서 7월 31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희주 권사님께서 7월 31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성실 집사님(이유진 형제의 부친)께서 7월 28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li> <li>- Truth&amp;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li> </ul> </li> <li>■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li> <li>-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li> </ul> </li> <li>■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li> <li>■ 아기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li> <li>■ 헬스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li> <li>■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li> <li>■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li> <li>■ 주일 레위기 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li> <li>■ 편집장: 김경자 권사</li> <li>■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li> <li>■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li> <li>■ 번역: Grace Yi 전도사</li> </ul>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mailto:bgrcenter@hotmail.com)

**Supreme Jesus!**



# The Workplace, A Place of True Spirituality (Colossians 3:22–4:1)

**1.** On a scale from 1 (very dissatisfied) to 10 (completely satisfied), how would you rate your level of satisfaction at your current workplace? If you are retired, how would you rate your satisfaction at your previous workplace?

**2.** In what context was the message “Slaves...” given to the Colossian believers?

**3.** The instruction is to, “Whatever you do... do it as if you were doing it for the Lord.” What dualistic way of thinking should we be cautious of?

**4.** Let's summarize the grounds for obedience (verses 22–25):

1) \_\_\_\_\_

2) \_\_\_\_\_

3) \_\_\_\_\_

**5.** What is the Christian view of work that we learn from today's passage?

1) \_\_\_\_\_

2) The reason masters are to treat their slaves with justice and fairness is because they also have a Master in \_\_\_\_\_. (Reference: 1 Peter 2:17, Acts 12:22–23)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